기아자동차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생산기술

**[선택질문] 소위 “스펙”(학교, 학점, 전공)을 제외하고 기아차가 당신을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최대 3000자 이내)**

<저는 ‘공대 아름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합니다. 친구들, 친척들은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소위 말하는 ‘공대 아름이’이기 때문입니다. (공대 아름이 : 한 이동통신사 cf에서 쓰인 말로, 공대의 여자희귀 현상으로 인해 공주대접을 받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현재 저희 학과 4학년 157명 중에서 여자는 3명뿐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선배들, 동기들,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래에 두 동생들을 둔 장녀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 각반이었던 저에게 막내로, 공대 아름이로 예쁨 받고 보살핌 받는 생활은 매일 매일이 새롭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어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학년 2학기 필수과목 중에 ‘공학설계입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조별로 고무동력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대회를 치르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율로 조를 편성하도록 하셨는데, 밥 먹고 술 마실 때는 항상 저를 찾던 동기들이 아무도 저와 같은 조가 되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타과생과 외국인, 반수준비로 수업에 관심 없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나머지 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에 열정이 없었던 조원들과 함께한 수업의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이 챙겨주는 것에만 익숙해져있던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남이 대신 성취해 주지 않는 다는 것, 공대에서 여자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럴수록 더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 이후 저는 성별이라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CATIA를 이용해서 차량을 3D로 모델링하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선배들에게 교육을 받고 방학 때도 책을 찾아보며 혼자 공부해서 동기들에 비해 월등한 CATIA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국 CAD/CAM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델링 경진대회에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한 번 대회준비를 시작하면 모델 선정부터 아이디어 회의, 파트분담을 거친 후 보름 이상 남자선배들과 동아리방에서 노트북을 끼고 합숙을 하며 철야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3년간의 대회참가로 자동차 구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모델링 실력 증진,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자료작성은 물론, 팀 프로젝트에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체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저의 역할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과외와 학원으로 돈을 편하게 벌수도 있었지만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자는 생각으로 학원을 그만두고 웨딩홀 뷔페, 대형마트, 대형팬시문구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접시와 박스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하기에는 다소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300원 짜리 볼펜을 파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일에도 내부에는 고유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밖으로는 고객들과 소통하는 서비스정신을, 안으로는 상사와 동료와 소통하는 팀워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몸이 고된 일을 할수록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공학과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남학생이 절대다수인 학과의 특성상 남학생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여성 임원은 부적절하다는 학과 내의 인식을 바꾸고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진정으로 어우러지는 학과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선거공약을 세우고 홍보물을 만들고 유세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후배들이 저를 믿고 도와주는 것을 보고 저의 리더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마냥 어리기만 한 공대 아름이였던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도전과 노력의 합으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쉽게 헤쳐나간 적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딪혀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함께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많이 설렙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고,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을 가진 ‘공대 아름이’입니다.

**﻿**

**[공통질문] 해당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고, 본인이 지원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700자 이내)**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지만 구체적으로 생산기술 직무에 지원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작년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견학한 뒤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라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들과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완성차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제품과 설비, 기술을 직접 관리하는 생산기술 직무가 다른 직무보다 힘이 들지라도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산기술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학부 내내 활동한 설계 동아리에서의 대회참여를 통해 많은 협업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부서간의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협업을 미리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배울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 저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올해 6월 사보에 사원들에게 잊어버린 학창시절의 “열정”을 되살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인터뷰 기사 속 4명의 학생들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학교에서 경험하고 배운 소중한 것들과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
| --- |
|  |